# 일제의 한국군 강제해산과 전국적 의병전쟁
## -의병전쟁과 하상태-

이 동 언 / 독립기념관 연구원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군대해산과 해산군인의 의병부대 합류
Ⅲ. 한국군 시위대와 진위대의 항전
Ⅳ. 13도창의대진소의 전국 연합 의병전개
Ⅴ. 후기 의병의 전개 양상과 중부지방의 의병전쟁
Ⅵ. 맺음말

## Ⅰ. 머리말

우리 한민족은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국민이 뭉쳐 국난을 극복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수.당과의 항쟁, 고려시대 대몽항쟁, 조선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당시의 의병이 그러하였고, 한말 일제침략에 항거하여 의병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병의 개념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朴殷植(1859~1925) 선생은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서 '義兵'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義兵은 民軍이다. 國家가 危急할 때 즉시 義로써 일어나 朝廷의 命令을 기다리지 않고 從軍하여 싸우는 자이다." 또한 "의병은 우리 민족의 국수다(義兵者 吾族之國粹也)", "나라는 망해도 의병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② 黃玹(1855~1910) 선생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자결 순국한 황현선생은 그의 유고집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바도 없고 충성한 바도 없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뿐 생전에 한번 의병을 일으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③ 멕켄지(F. A. Mckenzie : 영국 Daily Mail紙 기자)는 『한국의 비극』에서 의병을 '정의의 군대(Righteous Army)'로 영역하였는데 정상적인 의미의 영역은 '의용군(Volunteer)'이다.

한말 의병은 이같은 민족사의 맥락을 이어 일어난 것으로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인한 단순한 배일감정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항쟁이 아닙니다.

본고에서는 일제의 한국군 강제해산 이후 해산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의병전쟁을 전개한 시기 경기도지역 그 중에서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군 진위대 하사출신으로 경기도 장단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항거한 河相泰 의병장의 활동과 하상태 의병부대와 연합한 연기우 의병부대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II. 군대해산과 해산군인의 의병부대 합류

한말 의병전쟁은 한국독립운동의 서막으로 시작되어 발전하는 가운데 독립운동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차지한다. 의병전쟁은 일반적으로 1894년 일제가 경복궁을 침략한 甲午倭亂에서 시작되어 3 . 1 운동직전까지 시기에 전개된 것으로 일컬어진다. 한말 의병전쟁을 ①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항거하여 일어난 乙未義兵(전기의병) ②일제의 을사5조약 강제체결에 항거한 乙巳義兵(중기의병) ③일제의 광무황제(고종) 강제퇴위와 한국군 강제해산 그리고 정미칠조약 강제체결에 항거한 丁未義兵(후기의병) 등 세시기로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앞에서 언급한 세시기에 전환기(1909. 11~1915. 7)로 국내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이동한 의병의 최후 항전과 독립군으로 발전한 시기와 말기(1915. 7~1918) 산발적 의병항쟁과 의열투쟁적 양상을 띤 시기로 세분하기도 한다.

1907년 7월 이후 일제는 대한제국 침략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광무황제(고종)의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파견 사실을 구실로 7월 18일 광무황제(고종)를 강제 퇴위시킨 후, 7월 24일에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일제는 '정미칠조약'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일제 통감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고급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부 차관에 일본인 관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일제는 8월 한국군 강제해산을 단행하여 일제에 항거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군사 기반을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제침략에 항거하여 전국적인 의병전쟁이 전개되었다.

## III. 한국군 시위대와 진위대의 항전

후기의병은 일제의 한국군 강제해산에 반발한 시위대와 진위대 군인들의 항거로 점화되었다. 먼저 시위대 제1·제2연대 각 1대대는 1907년 8월 1일 일제가 한국군대 해산식을 강행하자, 즉각 무장항쟁에 나섰다. 훈련원 출발직전 제1연대 제1대대장 朴昇煥이 대대장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대한제국 만세!"를 외치고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박승환은 "군인이 능히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가 능히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시위대 항전은 박승환의 자결에 충격을 받은 병사들의 봉기에서 촉발되었다. 그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훈련원으로 출발하기 직전 대대장 박승환 참령의 자결 소식을 듣고 전부대원이 재무장하고 봉기하여 제2연대 제1대대에도 파급되어 그들도 재무장하였다. 그리하여 1,100여 명의 양 대대 병력은 남대문과 서소문에서 3시간 동안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전투에서 구한국군은 일본군 42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지만 17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흩어졌다. 그 후 한국군 시위대와 진위대 군인 400여 명은 전국 각처에 분산하여 의병부대에 합류하였다.

중앙의 시위대뿐만 아니라 지방의 진위대 병사들도 의병대열에 나섰다. 진위대는 전국에 8개 대대로서 수원, 청주, 대구, 광주, 원주, 해주, 평양, 북청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 분견대로서 수원예하에 개성, 안성, 강화, 북한산, 청주예하에 공주, 홍주, 대구예하에 경주, 울산, 진남, 진주, 안동, 문경, 광주예하에 강진, 전주, 원주예하에 강릉, 해주예하에 황주, 평양예하에 안주, 강계, 의주, 북청예하에 함흥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진위대의 병력은 본대가 100-250명, 분대는 50명 전후인 경우가 많았다. 진위대의 해산은 8월 3일에서 9월 3일까지로 계획되었는데 한국군 강제해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군인들은 해산에 앞서 의병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원주진위대는 본대에 251명의 병력이 있었고, 강릉분견대에는 50여 명이 배치되었다. 원주진위대의 해산은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군인들은 중앙 시위대의 해산 소식을 듣고 해산에 앞서 8월 5일 봉기하였다. 대대장 대리 정위 金悳濟와 특무장교(현재 준위) 閔肯鎬는 사병들에게 1,600여 정의 소총과 4만 발의 탄환을 배급하고 의병전쟁에 돌입하였다. 먼저 원주 우편소, 관청, 경찰서 그리고 일본인 가택을 공격하고 원주 시내를 장악하였다. 이어 의병부대는 김덕제, 민긍호, 韓甲福, 孫在奎 등의 부대로 분산 편성되어 본격적인 의병전쟁을 전개하였다.

강화진위대는 8월 11일 해산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제는 날짜를 앞당겨 9일 기습적으로 강제해산을 강행하였다. 불의의 강제해산을 당한 군인들은 河正道, 劉明奎, 池弘允 등 사병이 중심이 되어 주민과 연합하여 봉기하였다. 강화에는 李東輝가 설립한 普昌學校의 영향으로 주민의 애국열이 높았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해산군인과 합

세하여 친일군수 鄭景洙를 처단하였고 다음날 일본군 11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원주진위대와 강화분견대의 항전 외에도 해산병으로 개인 또는 무리를 지어 의병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한 사례를 보면 경기 20명, 충청 16명, 전라 8명, 경상 16명, 강원 13명, 황해 5명, 평안 6명, 함경 11명 등이다. 이들 한국군 출신 의병장의 출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한국군 출신 의병장 현황

| 계급 | 장교 | 준사관 및 하사관 | 병졸(포군포함) | 총계 |
|---|---|---|---|---|
| 인원 | 20명 | 31명 | 37명 | 88명 |
| 백분비 | 22.7% | 35.2% | 42.1% | 100% |

* 준사관은 특무정교.부교.참교를 말함. 참고로 참령은 현재 소령, 정위는 현재 대위, 부위는 현재 중위, 참위는 현재 소위에 해당한다.

위의 표를 보면 한말 한국군 출신 의병장 구성에서는 장교보다는 하급 지위관 및 병사들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별 한국군 출신 의병장 일람에 의하면 전국의 한국군 출신 의병장 87명 가운데 20명이경기지역 의병장으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이 자료에 나타나는 閔昌植(충청).沈相熙(충청).韓鳳洙(충청).金奎植(강원).金鳳基(황해) 등이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한 한국군 출신 의병장인 점을 고려하면 경기지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군 출신 의병장 87명의 도별 출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도별 출신의 병장수

| 도별 |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 강원도 | 황해도 | 평안도 | 함경도 | 계 |
|---|---|---|---|---|---|---|---|---|---|
| 출신의 병장수 | 20명 | 16명 | 8명 | 8명 | 13명 | 5명 | 6명 | 11명 | 87명 |
| 백분율 | 23% | 18% | 9% | 9% | 15% | 6% | 7% | 13% | 100% |

참고로 경기지방에서 활약한 해산 군인 의병장은 다음과 같다.

- 이경한(李京漢)〈정교〉
- 연기우(延起羽)〈부교〉
- 김운선(金雲仙)〈병사〉
- 황순일(黃順一)〈포군〉
- 이익삼(李益三)〈하사〉
- 윤전(尹전0 )〈하사〉
- 황재호(黃在浩)〈참위〉
- 정용대(鄭用大)〈정교〉
- 하상태(河相泰)〈하사〉
- 지홍일(池弘一)〈하사〉
- 김석하(金錫夏)〈정교〉
- 박종한(朴宗漢)〈특무정교〉
- 지홍윤(池弘允)〈부교〉
- 김동수(金東秀)〈병사〉

· 연기우(延基宇)〈하사〉　　· 제갈윤신(諸葛允信)〈병사〉
· 현덕호(玄德鎬)〈향관〉　　· 조재호(曺在浩)〈참위〉
· 허준(許俊)〈정위〉　　· 신창호(申昌鎬)〈병사〉 [ 20명 ]

## IV. 13도창의대진소'의 전국 연합 의병전쟁 전개

한국군 강제 해산 이후 의병전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907년 8월부터 12월까지 교전 횟수는 323회에 달하였다. 1907년 11월 경에는 전국 연합의병의 성격을 띠는 '十三道倡義大陣所' 연합부대가 결성되기에이르렀다. 13도창의대진소의 결성은 원주의 李殷瓚, 李球采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은 전기의병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던 문경의 李麟榮을 추대하여 1907년 9월 '관동창의대'를 결성한 후 임진강 일대에서 의병진을 결성한 許蕎와 협의하여 전국 의병을 연계하는 의병조직을 구상하였다.

이들은 해외 동포에까지 의병전쟁의 합법성을 설명하고 서울 진격을 선언하는 통문을 발송하여 전국 각 의병진영들이 연합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11월(음력)에는 주요 의병부대들이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였고 13도창의대진소가 조직되었다.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 | |
|---|---|
| 창 의 대 장 : 이 인 영(李麟榮) | 군 사 장 : 허　위(許蕎) |
| 관동의병대장 : 민 긍 호(閔肯鎬) | 교남의병대장 : 박 정 빈(朴正斌) |
| 황해진동대장 : 권 중 희(權重熙)(처음에는 申乭石) | |
| 관북의병대장 : 정 봉 준(鄭鳳俊) | 관서의병대장 : 방 인 관(方仁寬) |
| 호남의병대장 : 문 태 수(文泰洙) | 호서의병대장 : 이 강 년(李康季) |

위의 의병부대들은 모두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지는 못하였다. 일본군은 전국에 수비대를 배치하여 의병에 대한 치열한 '토벌'작전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함경도·평안도·경상도·전라도의 의병들이 기일내에 일본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양주에 집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13도창의대진소 연합의병부대는 이인영 의병부대·허위 의병부대·민긍호 의병부대·이강년 의병부대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다. 이들 4개 의병부대들은 다른 소규모 의병부대들을 통합하여 13도창의대진소의 연합 의병부대를 결성한 것이었다.

각 지역 의병부대들은 지평·양주로 집결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집결 후 서울로 향하는 도중 38회의 대규모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본진에서도 이변이 생겼다. 대장 이인영이 작전도중 부친 사망의 부고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2월 25일 이인영이 물러나고 군사장인 허위가 진격을 지휘하였고 11월 이후 양주근

방의 전투와 이듬해 1월 동대문 밖의 격전 등 서울 근교에서 두 달 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연합의병이 당초 계획대로 연합체제를 형성하지도 못하였고 또 그나마의 연합을 유지할 수도 없었던 형편이라 서울진격전도 장기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리고 김규식과 연기우가 부상당하는 타격도 입었지만 당시 신문에 보도된 서울 근교의 의병전쟁 회수만도 21회이고 보면, 크고 작은 전투가 지금의 청량리 근방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여 오늘날 동대문에서 청량리로 통하는 길을 허위의 호를 따서 왕산로(旺山路)라고 이름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군사장 허위가 이끄는 선봉대가 동대문 밖 30리 지점(현재 망우리 근처)까지 진격하였다고 한다.

13도창의대진소의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후 의병진은 허위의 지휘하에 임진강 유역으로 본거지를 옮겨 약 3개월간 재기를 준비하였는데 이을 '임진강 연합의병'이라고 한다. 의병진은 의병을 증모하여 비밀리에 훈련시키고, 무기와 탄약을 구입하여 무장을 보강하였으며, 군량을 비축하고 서울에 지원 세력을 조직하고, 각 의병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강화하였다. 이어 1908년 4월 21일 허위·이강년·이인영·유인석·박정빈 등의 이름으로 의병의 재기와 제2차 서울탈환작전을 알리는 통문을 전국 13도에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의병진은 다시 4~5월간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13도창의대진소의 제2차 서울탈환작전은 일본군 2개 연대의 증파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서울탈환작전은 1908년 1~2월간 퇴약해가는 의병세력을 급격하게 고무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임진강 연합의병은 1908년 6월 11일 양평에서 허위가 피체된 후 연합체제를 해체하여 소부대 단위의 유격작전으로 전환시켜 나갔다. 그때 연기우는 지리산으로 들어갔고, 허위와 함께 활약하던 그의 형 허겸은 김규식과 만주로 들어가 후일 부민단 단장과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역임하면서 독립군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3도창의대진소의 활동은 전국 의병을 크게 고양시킨 점, 소규모 의병부대들의 대동단결과 상호 연대 강화를 이룬 점, 의병전쟁의 정치 이론을 발전시킨 점, 한국인의 항일 무장투쟁을 전세계에 널리 알린 점은 한말 의병전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할 것이다.

## V. 후기의병의 전개 양상과 중부지방의 의병전쟁

후기 의병전쟁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으므로 그 사례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1907년 8월 일제의 한국군 강제해산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 1908년에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09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격감하고 있다. 즉 후기의병은 1908년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하락 국면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의 철저한 의병탄압과 만행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의병 피해상황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의병 사망자 수(1906~1911)

| 연도 / 일제기관 | 1906년 | 1907년 | 1908년 | 1909년 | 1910년 | 1911년 | 계 |
|---|---|---|---|---|---|---|---|
| 수비대 | 82 | 3582 | 9435 | 970 | 22 | | 13897 |
| 헌병 | | 11 | 1858 | 1594 | 101 | 7 | 3571 |
| 경찰 | | 36 | 269 | 20 | 2 | 2 | 329 |
| 소계 | 82 | 3627 | 11562 | 2374 | 125 | 9 | 17779 |

*수비대·헌병·경찰 구분은 의병과 전투한 일제 기관을 말함

일제의 의병 탄압은 1908년 극에 달하였다. 일반적으로 일제의 의병탄압은 1909년 9~10월의 '남한대토벌작전'을 일제 의병 탄압의 상징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이미 1908년에도 일제는 대대적인 의병탄압과 학살만행을 자행하였다. 즉 1909년 소위 '남한대토벌'은 일제의 의병 탄압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병 탄압의 주무 기관은 1908년까지는 일본군수비대였으나 1909년 이후에는 일제 헌병대의 역할이 높아갔음도 특징이다. 일제 헌병대의 침략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08년에서 1910년까지의 지역별 의병 전투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의병 사망자 수(1906~1911)

| 연도 / 지역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강원도 | 황해도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함경북도 | 함경남도 | 총계 |
|---|---|---|---|---|---|---|---|---|---|---|---|---|---|---|
| 1908년 | 18(4.0) | 113(5.7) | 217(11.0) | 219(11.1) | 274(13.9) | 158(7.9) | 153(7.7) | 273(13.8) | 232(11.7) | 14(2.1) | 108(5.5) | 11(0.6) | 99(5.0) | 1,976(100) |
| 1909년 | 165(9.5) | 66(3.8) | 138(7.9) | 273(11.1) | 547(13.9) | 161(9.3) | 61(3.6) | 124(7.2) | 111(6.4) | 17(0.5) | 61(3.6) | | 14(0.9) | 1.738(100) |
| 1910년 | 31(24.2) | 4(3.1) | 2(1.5) | 5(3.9) | 1(0.7) | 14(10.9) | | 20(15.6) | 31(24.2) | | 14(10.9) | | 6(4.0) | 128(100) |

*수비대·헌병·경찰 구분은 의병과 전투한 일제 기관을 말함

위의 표에 의하면 1908년에는 전남·강원·황해·충남·전북지역에서,1909년에는 전남·전북지역에서, 1910년에는 경기·황해·강원·평남·경북지역에서 의병교전의 비중이 높았다. 대체로 후기의병 전반기에는 남부지역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1910년대에는 의병전쟁의 중심지가 북부지방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1909년 9~10월 사이에 일제의 대대적인 '남한대토벌작전'에 의해 남부지방 의병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중부지역은 의병전쟁의 주요 공격 목표인 서울이 위치해 있으며 전기의병 이후 전투가 치열하였던 곳으로 여러 의병부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허위를 중심으로 한 13도창의대진소 연합 의병부대 외에도 민긍호·이강년·김수민·조인환·이은찬·한봉수·박여성·연기우·지용기·강기동 의병부대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여

기서는 하상태 의병장이 참여하여 활동한 연기우 의병부대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기우 의병부대는 13도창의대진소 이후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창의원수부의 조직에는 편제되지 않았지만 원수부의 각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연기우 의병부대는 부하 金光善이 따로 의병대장이라 칭하고 부하 30명과 무기를 휴대하고 경기도 고양·양주 등지에서 활동하였듯이 소부대 중심으로 고양군을 근거지로 임진강 유역을 따라 폭넓게 활동하였다. 하상태 의병장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한국군을 강제해산하자 경기도 장단에서 의병을 일으켜 강화의 연기우 의진과 합세하여 고량포 일대에서 일본군 진영을 교란시키는 등 전과를 올렸다.

연기우 의병부대는 13도창의대진소가 해체된 후 강원도 철원군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1908년 2월 24일 연기우 의병부대는 철원군 신서면에서 철원 헌병분견소 이케모토(茂木敬吉)외 1명이 연천수비대와 통신을 위해 출동한 것을 목격하고 이들을 저격하여 이케모도를 사살하고 총검 각 1정, 실탄 20발을 노획하였다. 하상태 의병장은 같은 해 5월 경기도 장수련에서 연기우 의병부대와 합세하여 의병 300명을 이끌고 동두천 방면으로 진격하여 일본군 병참소를 습격하였다. 연기우는 7~8월경 200~3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강원도 철원, 황해도 평산·안협·토산 등 일부 지역과 경기도 장단·마전·연천·적성·삭령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일제의 끈질긴 추격을 피한 연기우는 군수전 확보와 방곡령 등의 활동뿐 만아니라 각 지방에 설치된 일제의 침략 근거지인 헌병분견소를 공격하는 등 보다 공세적인 활동을 벌였다.

1909년 1월 연기우는 부하 300여 명을 두 부대로 나누어 토벌대의 허를 찔러 토산군 시변리 헌병분견소와 안협읍을 공격할 계획이었으나 일제 토벌군의 정찰이 강화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연기우 의병부대와 격전을 벌인 평산의 헌병은 연기우 의병부대에 대해 "적은 자못 우세하여 무기 복장들도 종전과 달라 약간 정돈되고 특히 교묘하다"고 보고할 정도로 기세가 드높아 이 곳에 주재하던 일제 경찰 가족들이 도피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연기우는 각 군을 돌며 일반 민심을 감화시키고 특히 헌병보조원과 맞닥뜨리면 싸우지 않고 간곡하게 설득하여 의병에 투신하게 하였다. 이 무렵 하상태 의병부대는 토산.금천 등지에서 격문을 뿌리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이 지역 의병들을 토벌하려고 1909년 3월 18일부터 철원.삭령.이천의 각 수비대와 경찰, 일본인과 한국인 순사, 헌병을 동원한 대대적인 토벌을 개시하였다.

이 무렵 하상태 의병부대는 1909년 4월 9일 경기도 장단군에 있는 삭령수비대 소속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교전하다가 의병장 하상태가 체포되어 연행 도중 혀를 깨물어 자결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하상태 의병장의 공을 기리어 1977년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하상태 의병장 유적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전공비가 있고, 전기인 『하상태전』(하달영 소장)을 남기고 있다.

참고로 1908. 1 ~1909. 10 사이에 체포, 전사한 경기도지역 의병장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의병 사망자 수(1906~1911)

| 성명 | 김규식(金奎植) | 김정한(金貞韓) | 박윤완(朴允完) | 심상희(沈相喜) | 김홍렬(金鴻烈) | 신창현(申昌鉉) | 김성삼(金聖三) | 이기철(李奇喆) | 허위(許蔿) |
|---|---|---|---|---|---|---|---|---|---|
| 소속부대 | 허위부대 | | 박순근부대 | | | 조인환부대 | 연기우부대 | | 13도창의군 |
| 년월 및 구분 | 1908. 4 체포 | 1908. 4 체포 | 1908. 4 체포 | 1908. 4 체포 | 1908. 5 체포 | 1908. 6 체포 | 1908. 6 체포 | 1908. 6 체포 | 1908. 6 체포 |
| 성명 | 김창돌 | 이상봉(李相奉) | 장인선(張仁善) | 정주원(鄭周源) | 김석하(金錫夏) | 박래병(朴來秉) | 임운명(林雲明) | 유윤재(柳文在) | 김봉기(金鳳基) |
| 소속부대 | | 강화의병 | | 서용범부대 | 박래병부대 | | 박뢰심부대 | 김연성부대 | 강화의병 |
| 년월 및 구분 | 1908. 6 체포 | 1908. 6 체포 | 1908. 7 체포 | 1908. 7 체포 | 1908. 8 체포 | 1908. 8 체포 | 1908. 8 체포 | 1908. 10 체포 | 1908. 10 체포 |
| 성명 | 김귀손(金貴孫) | 신태식(申泰植) | 이능곤(李能坤) | 지홍일(池洪一) | 윤인순(尹仁淳) | 이은찬(李殷贊) | 김현국(金懸國) | 김석복(金錫復) | 전전유 |
| 소속부대 | 윤인순부대 | | 강화의병 | 강화의병 | 강화의병 | 창의원수부 | 창의원수부 | | |
| 년월 및 구분 | 1908. 11 체포 | 1908. 12 체포 | 1908. 12 체포 | 1909. 1 체포 | 1909. 3 전사 | 1909. 3 체포 | 1909. 3 교수형선고 | 1909. 4 체포 | 1909. 4 체포 |

*자수 또는 귀순한 의병장과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의병장은 제외하였음. 김현국의병장의 경우는 체포된 정확한 월일을 알 수 없어 체포되어 교수형을 선고받은 월일로 하였음.

## VI. 맺음말

경기도지역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서울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일제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 속에서 전국의 타 지역보다 정국 변화에 민감하였다. 일제가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켜 전쟁 수행을 위해 군용지라는 미명하에 토지를 침탈하고 강제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여 수탈을 자행하자 1904년 경기 각지에서 의병이 제일 먼저 봉기하였다.

후기의병은 활빈당과 같이 그 동안 반봉건 투쟁을 벌여 오던 농민세력이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에 맞서 의병으로 전신하면서 시작되었다. 1905년 일제의 을사5조약 강제체결로 유생 의병들이 참여하면서 확산된 의병전쟁은 1907년 8월 한국군 강제해산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구실로 일제는 광무황제(고종)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노골적으로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후의 의병전쟁은 국권회복을 위한 전국적 전민족적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군 해산군인들의 의병부대 합류로 무기와 전술면에서 이전보다 향상되었으며,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항전을 전개하였다. 전국의 의병부대가 13도창의대진소 조직에 합류하여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하자, 일제는대대적인 '남한대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의병을 탄압하고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의병들은 중국·러시아지역으로

이동하여 독립군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유생출신 의병장들은 활빈당, 화적, 평민, 출신 의병장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예를 들면 양주의 한 의병장이 활빈당 출신으로 적성에서 의병을 일으킨 권준을 '화적 괴수'라고 살해한 사건이나 유생 의병장 하상태가 화적 출신으로 보이는 의병장 李種協을 살해한 사건에서 유생출신 의병장들의 신분차별이 국권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